



“참가” “거부” 팽팽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투표 ‘참가-거부’운동 양 진영이 막판 세몰이에 나섰다. 투표참가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구호를 외치며 시민에게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왼쪽). 서울광장에서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투표’ 여야 막판까지 세몰이

여 “전형적 포퓰리즘” 부각 투표 독려 야 “오씨, 심판하자” 불참운동 극대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주민투표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조직을 총가동한 것은 물론 여론 선점을 위해 가시 돌린 설전을 주고 받았다. 우선, 한나라당은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어 투표율 33.3% 달성이 가능하다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캐나다 등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선진국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시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성숙한 시민의식, 주권의식을 믿는다”며 “투표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율 미달로 투표가 무산되면 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무산된 투표나 마찬가지라며 투표불참 운동을 극대화했다. 중앙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으며 서울시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에서 맨투맨 선전전을 하며 투표 불참을 호소했고, 문자 메시지, 시민상담활동 등도 병행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민투표 대책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총 1515개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역의 모든 출입구에서 주민투표 불참 역의 시민들에게 “나쁜 투표, 착한 거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직장

한나라, 한·미FTA·北인권법 민주당 반대 속 강행 처리하나

민주 “재재협상·병합심사” 주장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안을 강행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은 10월 정기국회, 북한인권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해 “내달 5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켜 놓고 10월 중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

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10+2 재협상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재협상안 중 국내법과 관련된 문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장 외투위의 24~25일 한·미 FTA 공청회도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대토론회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공청회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1년4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이 북한인권법을 다른 제의가 없는 것으로 관망된 만큼 제일 먼저 북한인권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노력하겠다”며 단독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외투위로 넘겨, 민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주장처럼) 그렇게 다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북정책 새롭게 발전시켜야”

美 외교전문지 기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남북관계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Trust-politik)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책, 즉 균형정책

(Alignment Policy)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23일 인터넷으로 공개된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9·10월호에 게재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반세기 넘도록 북한은 국제적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한국은 당연히 북한

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 놓아야 한다”며 “현재 남북한 사이의 신뢰가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신뢰를 새롭게 재구축할 기회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총리 “高卒 채용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이러 “미국·유럽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따라 국제 IT 제품 수출 감소, 국내 증시 하락과 대외 건전성 지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상세한 모니터링과 적극적 대응을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식 국무총리는 23일 “취업 후에도 고졸 인력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사내 대학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대우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에서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등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상 허점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정치인 인기는 목욕탕 수증기와 비슷”

‘박근혜 대세론’ 반박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3일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정치인들의 인기라는 건 목욕탕의 수증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이 좋게 생각하다가도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지도 한 때는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1등을 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대선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1년 반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관점에서 굉장히 투표할 결과 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는 최근 사회복지재단인 ‘아산나눔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권력병목 재촉하고 있다. 이는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데 따른 활로 모색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사 선언 이후 자신을 박 전 대표의 유일한 대항마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나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부쳐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고급	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초급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고급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8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8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력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실용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교육기간:** 2011년 9월 9일(금)~2012년 6월말일까지: 1년과정
* 매주 금요일 주회 19시~21시 교육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각종선거출마예정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초 안에 답변방법 등
- 교육요령:**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등록시간: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실관 4층)
- 등록방법** (수강료: 1년 400,000원 - 분할납부: 학기당 2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광주대 평교원)
-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원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010-5692-9998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107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유성재영의 인기편
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
아직 24시간 100% 직접통화 하지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교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번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천 구 오 백
남 여 **1688-7958**

보급보관량 >>> 07번 음성 소실량 >>> 07번 여행정보 >>> 12번
연인만들기 >>> 03번 매니안남방 >>> 10번 1:1 대화방 >>> 15번

14년 전통 핫트론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 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5일 24시간 1:1 전화 상담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